

# 세계 명작 중심에 서다 | 바리톤 유한승, 로열 오페라 하우스서 '리골레토' 주역 맡아 성량·연기력 선보

한국 바리톤 유한승이 세계 최고 권위의 오페라 극장으로 꼽히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주역을 맡아 성공적인 공연을 펼쳤다. 유한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에서 열린 공연에서 주인공 리골레토 역으로 출연 압도적인 성량과 섬세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다. 공연 후 무대 인사를 통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리골레토'의 주역은 수십 년간 유럽 정상급 바리톤들이 맡아온 대표적인 고난도 배역으로, 성량·극적 표현·연기력까지 모두 요구되는 오페라계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인간의 비극을 담은 베르디 걸작**  
리골레토는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1851년 발표한 대표작으로 권력과 욕망 부상에 복수하는 인간 본질의 감정을 강렬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궁정 광대 리골레토가 딸 잡다를 지키려다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서사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리골레토 역은 폭발적 성량과 깊은 감정 연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바리톤의 대표적 난역이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세계적 명곡**  
극 중 아리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La donna e mobile)'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도 익숙한 곡이다.



'mobile'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대중에게도 익숙한 곡이다. 이 곡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세계 3대 테너'가 세계 무대와 음반을 통해 선보이며 폭발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영화·드라마·광고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 활용되며 클래식을 넘어 대중문화 속으로 확산된 대표 사례

로 평가된다.

**#세계 정상 무대서 입증된 존재감**  
이번 무대는 한국 성악가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로열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세계 최정상급 극장에서 주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클래식 음악계 관계자는 '리골레토는 단순한 가창력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작품'이라며 '유한승은 음악성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전주 출신 성악가, 세계 무대로**  
전북 전주 출신인 유한승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수석 졸업한 뒤 독일 유학을 거쳐 함부르크 음대 대학원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모두 수석으로 마쳤다. 그는 네덜란드 IVC 국제콩쿠르 1위, 프랑스 마르망드 국제콩쿠르 2개 부문 1위, 뮌헨 국제콩쿠르 입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3위 등 세계 주요 성악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독일 카셀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약 10년간 활동한 뒤 프리랜서로 전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리골레토' 주역 성공을 계기로, 그의 종량감 있는 세계 무대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고향주부모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전북농협과 고향주부모임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현장 홍보에 나섰다. 전북농협(총괄부장 김성훈)과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는 지난 27일 전주 지역 하나로마트를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 전북 시군 회장단 10여 명과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제도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안내했다. 이들은 방문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 팸플릿과 전북 쌀을 배부하며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농업의 가치를 일컫는 '농심천심 운동'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오상근 기자



##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산학융합원과 협약 체결

전북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와 전신산학융합원은 지난 27일 전신산학융합원에서 스마트 안전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장년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중장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스마트 제조 교육 공동 운영을 비롯해 직무역량 강화, 재취업 지원 현장 면접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의 첫 실행으로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전신산학융합원 교육장에서 중장년 구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EV 미래차 스마트 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돼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집중 운영된다. 오전에는 참여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 취업전략 수립과 모의면접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현장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교육 이후에도 취업자 고용 유지 지원과 미취업자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후배 양성·의학 발전을 위해 써주세요"

유준호 라이브성형외과 원장  
전북대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에 지역 의료인의 발전기금 기부가 이어지며 의료 인재 양성과 진료 환경 개선에 힘이 보태지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라이브성형외과 유준호 원장이 병원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북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수련한 유 원장이 후배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기금은 성형외과 지정 기부금으로 관리되며 연구와 교육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 원장은 전북대병원에서 인턴과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정외의로 근무하며 임상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모교 병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유 원장은 "수련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현재의 기반이 됐



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후배들의 성장과 성형외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병원을 떠난 이후에도 후배와 병원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의료 인재 양성과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5~11월 '사브작사브작' 운영

실버세대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실버세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미술관 '사브작사브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능동적인 참여형 예술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사브작사브작'이라는 명칭은 손을 활용해 무언가를 천천히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 반복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활성화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음악과 운동을 결합한 '통합형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소리와 움직임, 시각적 창작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입체적인 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운영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손끝 감각을 깨우는 쿠키 만들기 △꽃을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꽃얼굴 만들기' △일상 속 변화를 경험하는 뷰티 클래스 △리듬을 통한 감각 확장 악기 체험 △생명을 돌보는 컵 화분 만들기 △자아 성찰을 돕는 거울



클레이 등 흥미와 정서적 회복을 돕는 활동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경증 치매 환자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 배려 계층이며, 미술관 내 미술관 풍 교육실 및 창작공간에서 화당 15명 이내의 소규모 밀착형 수업으로 진행,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063-620-5715)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불교 남원지부, 남원 쌀 150포 남원시에 기부

남원시 관계자는 원불교 남원지부는 28일 원불교 열린날(대각개교절)을 기념해 은혜의 쌀 나누기 행사를 통해 남원 쌀 150포(환가액 500만 원)를 남원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원불교 남원교당, 남원시 가족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뜻을 모아 참여했으며, 기부된 쌀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불교 남원지부는 매년 대각개교절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남원교당 박지상 교감교무는 "은혜의 쌀 나누기 행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적십자 전북, 2026년 봉사회 리더 교육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28일 도내 15개 시·군·구 협의회와 읍·면·동 단위봉사회 리더 약 180명 대상으로 봉사회 리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희망창조 실무과정 △모금 교육 △리더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통해 봉사원들은 적십자 봉사활동의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고 봉사회 임원으로서 역할을 이해하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박찬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은 인사발에서 "이 교육을 통해 각 봉사회 리더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봉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장수교육지원청, 유치원 놀이체험의 날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관)은 28일 장수누리파크 일원에서 관내 7개 공립유치원 원아 71명을 대상으로 2026 장수 공립유치원 놀이체험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유치원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간 연합 활동을 통해 원아들의 사회성을 기르고, 개별 유치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대규모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동행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장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실내 누리키즈카페와 실외 순환형 체험 부스를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유아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풍선 및 샌드아트 퍼포먼스를 비롯해 에어농구·야구·축구 등 신체 놀이, 토마스 기차 및 로봇 체험 등 아이들의 호기심과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들로 채워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 아이스크림 푸드트럭을 운영해 아이들이 축제 분위기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부안해경, 1인 조업선 구명조끼 보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성태)는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의 후원을 받아 관내 1인 조업선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벨트식 구명조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관하는 사회공헌 지원 사업에 직접 응모해 사업비 1,320만 원 전액을 확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임실군립도서관, '이야기꽃 할머니' 양성과정 운영

임실군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야기꽃 할머니' 양성과정은 지역 어르신의 독서문화 활동 참여 및 세대간 문화교류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야기 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책놀이 지도사 자격증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55세 이상 여성 10명으로 책놀이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군산 대안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군산시 대안농협은 28일 임피택 농업고용인력 임시기숙사에서 2026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환영식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베트남 까미우성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 관계 부서와 대안농협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농작업 안전 교육 등이 진행됐다. /군산=김만호 기자